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① 승정원 일기(承政院 日記)



이준훈  
포천시립장  
경기도문화원장겸예술사

1623년(인조1년)3월부터 1910년(융희4년)까지의 기록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에서 처리한 왕명 출납(出納)과 재판 행정 사무, 의례사함을 기록한 일기이다.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실이다. 승정원 일기는 1623년(인조1) 3월부터 1910년(융희 4)까지 총 3천243책의 기록을 말한다.

조선이 세워진지 2백년이 되는 해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왔다(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일본을 통일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사들의 불만을 의함을 통해 해소토록 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었다. 대비가 없었던 조선은 수비선이 모두 무너져 국왕이 결국 한성을 포기하고 북으로 피난을 가려야 했다. 7년 동안 지속됐던 이 전쟁은 조선의 수군(水軍)과 의병(義兵), 그리고 조선-명나라 연합군의 활약으로 일본군이 퇴각하면서 끝이 났다. 그러나 조선이 입은 피해는 막대했다.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또 거의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 농경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조선의 농공(農工)들과 문화계가 일본으로 악탈됐다. 이 전쟁은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인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어 도쿠가와 집안이 장군직을

세습하며 약 3백년 가까이 일본을 통치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도 명나라가 망하고, 만주족의 청나라가 중원의 패자가 되었다. 조선에서는 왕조가 유지되었지만, 한 세대가 지날 무렵에 다시 외부의 침략을 받아야 했다. 청이 쳐들어왔던 것이다(1636년 병자호란).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의 주서(注書)가 매일 작성하였다. 승정원의 직무는 왕명을 밑으로 전달하고 하의(下意 : 밑에서의 의견)를 왕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다. 그밖에 나라의 여러 공작인 일과 의례(儀禮)에 관련된 일을 담당했다. 승정원은 도승지(都承旨) 이하 승지와 하급관린인 주서(注書)로 이루어졌으며, 《승정원일기》의 기술은 주서의 소임이었다. 주서가 기록한 매일의 일기는 한 달 분씩 정리해 국왕에게 올려서 재가를 받는다. 임금에게 올리기 전에 일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한 달 분을 대개 한 책으로 엮었으며,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두 책으로 나누었다. 조선 전기의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1592년 임진왜란 때 불타고 말았다. 또 임진왜란 이후 1623년까지의 일기도 나중에 소실되었다.

일기의 내용은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데, 주로 국왕이 신하들에게 내린 글과 신하들이 국왕에게 올린 보고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기재 방식



세종대왕

을 보면, 한 달을 기준으로 책머리에 월간 경연(經筵)상황, 내전(內殿)의 동향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승정원의 관리 및 당직자의 표시와 출근상태를 표시하고 마지막에 승정원의 업무현황, 왕 및 내전의 문안, 승정원의 인사관계(人事關係) 등의 내용을 실었다. 기간과 승정원 명칭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623년부터 1894년 6월까지의 《승정원일기》 3,045책, 1894년 7월부터의 《승정원일기 承宣院日記》 4책, 1894년 10월부터의 《궁내부일기 宮內府日記》 5책, 1895년 4월부터의 《비서각일기 秘書監日記》 41책, 《비서원일기 秘書院日記》 115책, 1907년 11월부터의 《규장각일기 奎章閣日記》 33책이다.

승정원일기의 의의는 먼저 내용의 방대성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25사(3,386책, 약 4,000만자)와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888책, 5,400만자)을 훨씬 능가하는 총 3,243책(금지사 2,944천250만자)



훈

로 세계 최대의 규모의 연대 기록물이다. 두 번째 의의는 사료로서의 가치이다. 조선왕조실록이 국왕 사후 사관들에 의해 편집된 2차 자료인 데 반해, 승정원일기는 당시의 사실을 대로 기록한 1차 사료이다.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도 승정원일기를 자료로써 이용하였다고 승정원일기는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조선 후기 한국사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이다. 또한 원대성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25사(3,386책, 약 4,000만자)와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888책, 5,400만자)을 훨씬 능가하는 총 3,243책(금지사 2,944천250만자)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셰익스피어 에세이

셰익스피어 같은 이해조는 될 수 없는가



박정근  
연세대학교  
영문학과교수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작가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을 받는다. 그는 16세기 인물이지만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대단한 인물이다.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시대에 풍미해 있던 정치적 불안과 그의 작품에 풍부하게 담았다. 그는 여왕치하에서 불안한 시상을 보내고 있는 세력에 대한 정치적 안정을 위한 치유책과 그 배경이 되는 영국 역사를 재조명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실정을 하여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어 폐위되고 만 리처드 2세, 불한당과 어울리다 부왕의 불신임을 받았던 왕자 할, 온갖 골육상쟁 끝에 살해되는 리처드 3세 등을 문제의 인물로 등장시켰다.

셰익스피어의 시각에서 권력의 수호와 찬탈의 주인공들은 역사라는 커다란 수레바퀴 속에서 배우처럼 분장하고 자신의 입장을 대사 외우듯 하고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질서가 흔들렸을 때는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는 짧을지라도 한 세대의 한 민족을 불행으로 몰아넣고도 남는 것이다. 그러기에 시대에 대한 진단은 단숨에 이 지배계급이나 피지배계급, 권력자와 찬탈자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나 어느 쪽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열로 잠정되어있는 역사라는 현상을 뛰어넘는 초월적 비전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영국 역사의 치부라고 할만한 잠미전쟁이라는 랑카스터 집안과 요르크 집안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왕권투쟁을 관찰할 수 있었던 입장에서 역사 속에서 권력의 변천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 속에 마치 강박관념처럼 도사리고 있는 일관된 주제는 '선한 통치자와 악한 통치자, 그리고 합법적인 왕으로부터 권좌를 빼앗는 찬탈자'에 관한 것이었고, 이것이 역사, 영원한 역사, 그것의 영구적인 미케니즘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관점이다. 셰익스피어의 시각에서 권력의 수호와 찬탈의 주인공들은 역사라는 커다란 수레바퀴 속에서 배우처럼 분장하고 자신의 입장을 대사 외우듯 하고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질서가 흔들렸을

때는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는 짧을지라도 한 세대의 한 민족을 불행으로 몰아넣고도 남는 것이다. 그러기에 시대에 대한 진단은 단숨에 이 지배계급이나 피지배계급, 권력자와 찬탈자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나 어느 쪽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열로 잠정되어있는 역사라는 현상을 뛰어넘는 초월적 비전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한국의 이해조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신소설을 통해서 쓰러져 가는 조국을 애국계몽운동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 해결할 때 자강하고 독립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 그는 『자유종』, 『구마검』, 『산천초목』, 『홍도화』 등의 뛰어난 작품을 통해서 민족의 희극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마치 셰익스피어가 그의 사극을 통해 영국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해결의 비전을 제시하였던 것과 일맥 상통하다. 나는 이해조 선생에 대한 추모시를 통해 그의 업적을 그리고자 한다. "풍농이여/어둠의 시대를 밝히던/눈부신 햇빛 같은 선각자여/왕방산의 녹음이 짙어가고/산허리에 붉은 진달래와 영산홍이 흐드러지게 피다가/꽃이 하나 둘 바람에 날리어/한탄강 물줄기 들고 도는 포천천 어느 자락에/서러운 꽃다운 아내나 하나/물결에 떠내려가는 꽃잎 위에/청상으로 헛되이 흘러 보낸 청춘이 서러워/수심으로 가득 찬 두 눈에서/눈물 한 방울씩 짙어내어/살어 보내는 모습 /그렇게도 가슴이 아프던가요. 한 아내의 설움/쓰러져 가는 조국의 아픔만큼이나 깊고 크기에 /당신 가슴을 명틀게 만든/한숨으로 뿜어내는 한의 노래를/가난한 이야기로 밤새 풀어내어/대한의 남자가 사랑다운 사람으로 살아 아함듯이/대한의 여지도 꽃다운 꽃으로 피어나고/사랑하는 사내와 오순도순 살아가야 한다고/당신은 세상에 선포하셨지요. 조국이 힘을 잃고 절뚝거리고/내가 사는 이 땅이 조선인의 땅이라고/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을 때/우리 민족이 후진의 그림자에 /어둠에 갇혀 앞이 안보이고/ 흑세무민하는 미신의 마수에 걸려 /뒤뚱뒤뚱 허우적거릴 때 백두에서 천라까지 펼쳐지는 조국이며 /어두운 미몽에서 깨어나라고/이성과 합리로 빛을 밝히는 /새로운 시대로 거듭나라고/고뇌와 사랑이 가득한 가르침을/이야기책 속에 깨달음은 글씨로 /점점이 쏟아놓았지요. 왕방산 위로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여/저 깊은 계곡의 어둠을 몰아내듯이/새 시대의 희망과 이성의 광명이 /구시대의 미몽과 독선의 어둠을 밀어내어/큰 빛자루로 흩어린 마당을 쓸어내듯이/선조들의 막힌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시던/동농 이해 조선생이시여 당신이 쓰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살아나서 /세계열강과 함께 어깨를 겨루고자 하는/한국 민족에게 당신의 혼을 심게 하시어/꿈에도 그리던 희망찬 조국의 앞날이/당신의 이야기 속의 개혁의 메시지처럼/환히 펼쳐지게 하소서. 우리 산천에 여기저기 /붉디붉은 홍도화가 되어 /조국의 아내네를 사랑의 꽃으로/피어나게 하소서 /자유종 힘차게 울려서/당신의 송고한 뜻을 담은/건강한 청춘의 소리/세상 저 끝까지/울려 퍼지게 하소서"(박정근 이해조 추모시 전문)

교육에세이 42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며 무한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소실이나 영화 그리고 만화 등에서 다루어지면서, 상상 속에 머물던 일들이 최근 들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대중적인 것으로 일 반화되는 사례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이 거듭되는 첨단 과학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초적인 본능으로 부터 시작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창조적인 존재로 발전해 왔고, 그로부터 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진정한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인류의 역사는 발전과 성장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무대를 벗어나 '우주'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한의 가능성을 향한 인류의 새로운 도전은 지금까지 이룩해 온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도구 사용으로부터 시작된 문화의 유형이 이제 첨단 멀티미디어를 통해 사 이버 세계를 창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직접적 대면 없이도 모든 교류가 가능해지는 4차원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이끌어 가야 할 미래의 세계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인생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자기 정체(弊病)에 빠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변화

에 적응하지 못하면,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고 태만한 정신과 생활 태도의 소유자는 무한성과 다양성, 예측 불허의 변화 속에서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자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준비하고 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항상 늘 준비한 사람에게 뒤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21세기 세계화·정보화의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면서 자기 존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일을 설계하는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자기의 길을 단단히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자신과 부모와 이웃을 생각하며,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자 연과 인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 열린 마음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를 새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꼭 그만큼의 눈에 보이는 결과는 주지 않을 지라도 항상 우리에게 그에 합당하는 많은 것들을 줍니다. 세상은 항상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꼭 노력한 그만큼의 성과를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세상이 주는 시련과 실패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지 않을지라도 인내와 지혜를 선물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그만큼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가 돌아온다는 것과 또한 오늘을 열과 성을 다해 긍정적 사고와 능동적 참여로 임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내일을 돌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에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하여 펼쳐질 수 있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천의 학생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도전하여 이를 헤쳐 나가고자 한다면 자기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늘 준비된 자세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특별한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정주  
포천여자대학교 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상금·보상금 지급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진료내역신고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공익신고』란?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의사·약사·간호사·의무기록사·사무원 등)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알고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방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해당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부당청구 행위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와 증거자료 등을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으로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진료내역신고』란?

공단에서 알려드리는 「진료내역통보서」를 받으시거나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 등)을 이용하신 경우, 수진자(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진료내역을 확인 한 결과, 실제 진료 받은 사실과 다를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방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진료내역이 상이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와 증빙자료 등을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포상금 지급〉

부당 환수금액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한도액:3천만원)
15만원 이상~5백만원 이하	환수금액의 30%
5백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150만원+5백만원 초과 금액의 20%
3천만원 초과	650만원+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

〈보상금 지급〉

부당 환수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한도액:5백만원)
2천원이상~2만5천원 미만	1만원
2만 5천원 이상	환수금액의 40%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시지사 ☎ 031-544-3419(보험급여팀)

http://www.nhic.or.kr